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설립과 파괴 그리고 재건

한 형 주 (성북선잠박물관장)

-
1. 머리말
 2. 경복궁의 창건과 재건
 3. 경복궁의 구조 및 주요 건물
 4.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
-

1. 머리말

1392년 조선왕조의 개창으로 과거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개성을 버리고 새로운 도시인 한양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한양은 북서쪽에 북악산, 인왕산 등을 기대고 남쪽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한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입각하여 설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조후시(前朝後市)’ 즉, ‘조정은 앞쪽에, 시장은 뒤쪽’에 위치시키고,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둠으로써 『주례(周禮)』의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사상에 입각한 도시 구조를 기획하였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유교적인 의식에 따라 4개의 대문과 다시 4개의 소문을 만들어 도성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였고, 여기에 동, 서, 남, 북의 4교(郊)를 포함하여 ‘도성과 4교’로 서울을 지칭하였다. 이 구역은 대체로 조선 시대 500여 년간 조선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1395년, 한양에 경복궁이 세워졌으나 처음부터 조선의 왕궁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은 아니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이곳 외에도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등이 왕의 거처인 궁으로 설립되어 경복궁의 위치를 위협하였다. 더욱이 임진왜란 때 한양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파괴된 후, 이 중에서 창덕궁은 새로 재건하였으나 경복궁은 수선하지 않음으로써 경복궁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의 지역이 되었다. 이후 1865년부터 고종이 경복궁에 대한 대규모 복구공사를 시작하면서 조선 전기의 경복궁 체제는 다시 설정될 수 있었지만, 이후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침범함으로써 정궁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렸고, 1910년 일제 식민지화에 따라 대규모로 경복궁을 파괴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같이 다난한 경복궁의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 조선 건국과 임진왜란으로 인한 파괴, 그리고 뒤이은 고종 대의 재건,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의 수난과 아울러 경복궁 내부의 여러 건물들의 쓰임새와 함께 경복궁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피고자 한다.

2. 경복궁의 창건과 재건

1) 궁의 명칭과 경복궁의 창건

‘궁’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선 시대 전체를 살펴볼 때 왕의 거주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왕이 사는 집인 왕궁뿐 아니라 일부 왕족의 집도 아울러 칭하는 경우가 있었고, 후궁이나 왕족의 사당을 가리킬 때에도 종종 사용하였다. 사도세자의 사당을 경모궁(景慕宮)이라 칭하고, 선조의 후궁이자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사당을 저경궁(儲慶宮)이라 하거나 영조의 생모인 수빈 최씨의 사당을 육상궁(毓祥宮)이라 부르는 것이 그러한 예들이다.

궁의 명칭에도 다른 것이 있다. 현재 5대 궁이라 하면 경복궁(景福宮), 창덕궁(昌德宮), 창경궁(昌慶宮), 경희궁(慶熙宮), 경운궁(慶運宮) 등을 말한다. 본래 경복궁은 정궁(正宮) 또는 법궁(法宮)을 일컫는 것이고, 창덕궁은 원래 경복궁을 보조할 이궁(離宮)으로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파괴된 이후에 그 기능을 창덕궁이 대신하면서 정궁으로 불리었다. 이 밖의 나머지 궁궐은 이궁 또는 별궁(別宮)으로 칭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왕이 직접 거주했던 장소이다.



〈그림 1〉 조선 시대 5대 궁궐 및 그 위치

궁궐은 풍수설의 명당지 개념인 배산임수(背山臨水)가 구현된 곳이었다. 예컨대 경복궁을 살펴보면 주위에 궁장을 쌓고, 그에 합당한 4문(건춘문, 영춘문, 광화문, 신무문)을 배치하였다. 정남의 광화문을 들어서면 홍례문이 있고, 영제교를 지나 외전 정문인 근정문에 다다른다. 근정전 일곽을 회랑의 보간이 2칸인 복랑(複廊)이 장방형으로 둘러막아 외전공간을 만들었으며, 그 내정 북쪽으로 치우쳐 궁궐 정전인 근정전이 남향해서 자리 잡는 방식이었다.

새 왕조의 이름과 도읍지가 1392년 새로운 국가의 건국과 동시에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고려의 권서국사(權署國事)로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을 때 명에서 왜 국호를 바꾸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이에 크게 동요되어 1393년 국호를 ‘조선’으로 삼고 새 도읍지로 ‘한양’을 결정하였다.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한양에 새로운 ‘좌묘우사’를 짓도록 하였고, 다음에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열어 궁의 창건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에 완성하고 이곳에 입조하였다. 이때는 궁의 명칭을 『시경』 주아(周雅)에 나오는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에서 두 자를 따서 경복궁이라고 지었다.

이 당시 궁의 규모는 390여 칸으로 크지 않았다.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 5칸에 상하층 월대(月臺)와 행랑·근정문·천랑(穿廊)·각루(角樓)·강녕전(康寧殿) 7칸, 연생전(延生殿) 3칸, 경성전(慶成殿) 3칸, 왕의 평상시 집무처인 보평청(報平

廳) 5칸 외에 상의원·중추원·삼군부(三軍府) 등이 왕의 호위 기관으로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交泰殿)도 없고, 집현전, 홍문관 등 문관 기구들이 전내각사로서 왕궁에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이후로도 경복궁은 오랫동안 왕의 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으로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정종이 자기가 태어난 개경으로 돌아간 후 1405년(태종 5)에 이르러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再遷都)할 때까지 경복궁이 비어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환도 전에 태종은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昌德宮)을 완성하고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할 때 환궁은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으로 바꾸어 시행하였다. 경복궁은 1427년(세종 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궁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경복궁의 확장을 위해 잠시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했다가 완성 후 경복궁에서 생활하면서 경복궁(정궁)과 창덕궁(이궁)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다가 성종 대에 이르러 창덕궁이 정궁이 되었다. 왕의 할머니, 어머니인 정희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 등이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기면서 창덕궁을 대규모로 증축하였고, 그 명칭을 창경궁(昌慶宮)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로써 창경궁은 창덕궁의 보완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1543년(중종 38) 동궁에서 일어난 화재와 1553년(명종 8)에 일어난 내전일곽의 화재로 인해 근정전 북쪽의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듬해에 강녕전 외에 교태전·연생전·흠경각·사정전(思政殿)을 복구했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경복궁은 모든 건물이 불타오르게 되고, 1865년(고종 2)에 이르러 대규모 공사를 하기 전까지 경복궁은 폐허의 상태로 머물렀다.



〈그림 2〉 경복궁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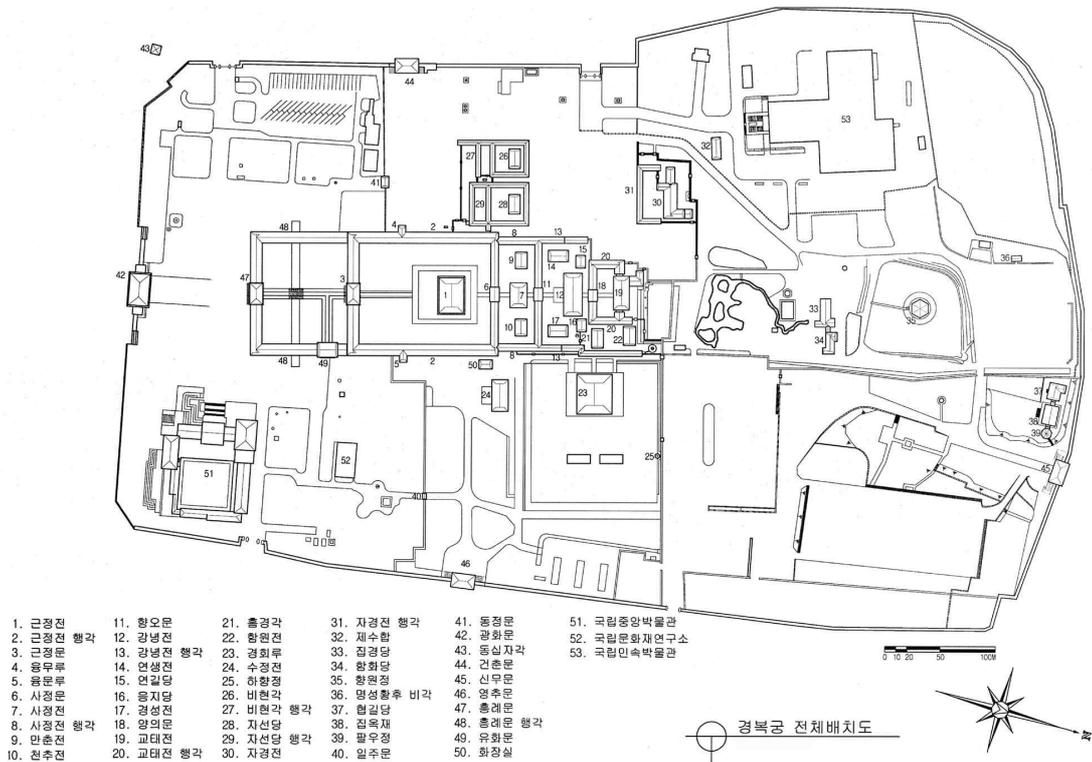
2) 고종대의 재건과 일제강점기의 경복궁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전소되고 말았다. 1593년 환경(還京)을 했을 때 왕이 거처할 장소로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현 덕수궁 터)을 임시 어소(御所)로 정하였고, 이후 근방의 인가를 개조하여 정릉동 행궁(貞陵洞 行宮)의 대규모 중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경복궁의 복구 문제는 왜란 직후부터 논의되었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선조는 환도한 뒤 경복궁에 가가(假家)라도 지을 것을 명하였고, 1606년(선조 39)에는 궁궐영건도감(宮闕營建都監)을 설치하고 광화문과 근정전 등 주요 건물만이라도 우선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대신들이 ‘공사가 커서 1, 2년에 끝낼 수 없으므로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만류하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여기에다 경복궁이 풍수학적으로 길(吉)하지 못하여 자주 불길이 일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결국 왜란 후 경복궁 대신에 창덕궁을 재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광해군도 한때 경복궁을 수축케 하고 중건의 뜻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고 대신 창덕궁의 중요 전각들을 건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慶運宮)으로 바꾸고 창덕궁으로 이어하고 창경궁을 재건하도록 하였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뒤 이괄(李适)의 난과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이라는 2차례의 호란을 겪으며 창덕궁이 소실되자 다시 중건하도록 하였다. 이어 1647년(인조 25)에 창덕궁에 입어하였지만, 경복궁을 복구하는 일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창덕궁(정궁)-창경궁(보조궁)-경덕궁(서궁) 체제가 성립되었다.

경복궁이 소실된 지 약 270년이 흐른 뒤인 1865년(고종 2), 중건이 재개되었고, 1867년(고종 4)에 완성되었다. 이때는 고종의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昞應)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그는 왕권의 강성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궁이 올바르게 서야 한다고 파악하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로 경복궁의 재건을 시행하였다. 이때의 경복궁은 여타 궁궐의 규모나 격식을 훨씬 능가하여 규모는 7,225칸이나 되었고, 후원에 지어진 전각은 용문당(隆文堂)을 포함하여 256칸이고 궁성 담장의 길이는 1,765칸이나 되었다.



〈그림 3〉 경복궁 전체 배치도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고종은 경복궁이 완성된 후인 1868년(고종 5)에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1873년(고종 10) 익종비인 신정왕후(조대비)가 기거하는 자경전(慈慶殿)에 불이 나서 400여 칸이 소실되자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고종은 경복궁을 중수 하도록 명을 내렸고, 1년 반 후(1875년)에 경복궁이 복구되자 고종은 다시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그러나 다시 다음 해인 1876년에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나 교태전, 자경전 등 830여 칸이 소실되면서 고종은 또다시 창덕궁으로 이어 하였다.

이후에도 1888년(고종 25) 경복궁을 수리하고 재차 옮기는 등 여러 차례의 피해와 복구가 거듭되었다. 한편, 조선은 외국 열강들의 세력다툼으로 혼란에 빠져 들어갔다. 1895년(고종 32)에는 궁 안에서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왕은 1896년에 이르러 러시아공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면서 경복궁은 주인을 잃은 빈 궁궐이 되었다.

1910년, 일본인들은 궁 안에 있는 전(殿)·당(堂)·누각 등 4,000여 칸의 건물을 헐어서 민간에 방매(放賣)하였고, 1917년 11월에 일어난 창덕궁의 대규모 화재

뒤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 경복궁의 교태전·강녕전·동행각·서행각·연길당(延吉堂)·경성전·연생전·인지당(麟趾堂)·흠경각·함원전(含元殿)·만경전(萬慶殿)·흥복전(興福殿) 등을 철거하여 그 재목(材木)으로 창덕궁의 대조전(大造殿)·희정당(熙政堂) 등을 지었다. 이제 궁전 안에는 겨우 근정전(勤政殿)·사정전(思政殿)·수정전(修政殿)·천추전(千秋殿)·집옥재(集玉齋)·경회루(慶會樓) 등과 근정문(勤政門)·홍례문(弘禮門)·신무문(神武門)·동십자각(東十字閣) 등만이 남게 되었으며 정문인 광화문(光化門)도 건춘문(建春門) 북쪽으로 이건하였다.

아울러 궁의 중심건물인 근정전 정면 앞에 매우 큰 석조건물인 총독부청사를 지어 근정전을 완전히 가려 버렸다. 이 밖에 자선당 자리에도 석조건물을 짓고 건청궁(乾淸宮) 자리에는 미술관을 지어 궁의 옛 모습을 거의 인멸시켰다.

총독부청사는 해방 후인 1995년 8·15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철거되었으며, 이 자리에 원래 있던 홍례문 권역이 2001년 10월에 복원·낙성되었다. 한편, 경복궁의 복원공사가 1991년부터 침전·동궁·홍례문·태원전·광화문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년에 걸쳐 5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고종 당시 지어진 건물의 40%가 복원되었고,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1968년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졌던 광화문도 원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복원된 건물의 수는 약 20% 정도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림 4〉 1996년도 중앙청(조선총독부)의 전경 및 폭파 모습

3. 경복궁의 구조 및 주요 건물

1) 5문과 3조 체제

원래 궁궐은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5문(門)과 3조(朝)의 구분이 있어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5문은 궁궐을 이루는 지역에 설치된 궁문으로 고문(皋門), 고문(庫門), 치문(雉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에 해당하며, 각각에 큰 북을 달아 놓고 외적을 대비하는 곳이다. 3조는 궁궐의 공간으로 외조(外朝), 치조(治朝), 연조(燕朝)에 해당되며 황제가 통치를 시행하는 장소이다. 외조는 고문(庫門) 안에 해당되는 곳이고, 치조는 응문 안에 해당되고, 노문 안이 연조에 해당한다. 연조의 안쪽은 왕의 침소와 왕비의 정침이 각각 배치되어있다. 5문의 구조는 고려의 개경에서 일부 엿볼 수 있지만 한양의 궁궐에서는 3조의 형태를 비슷하게 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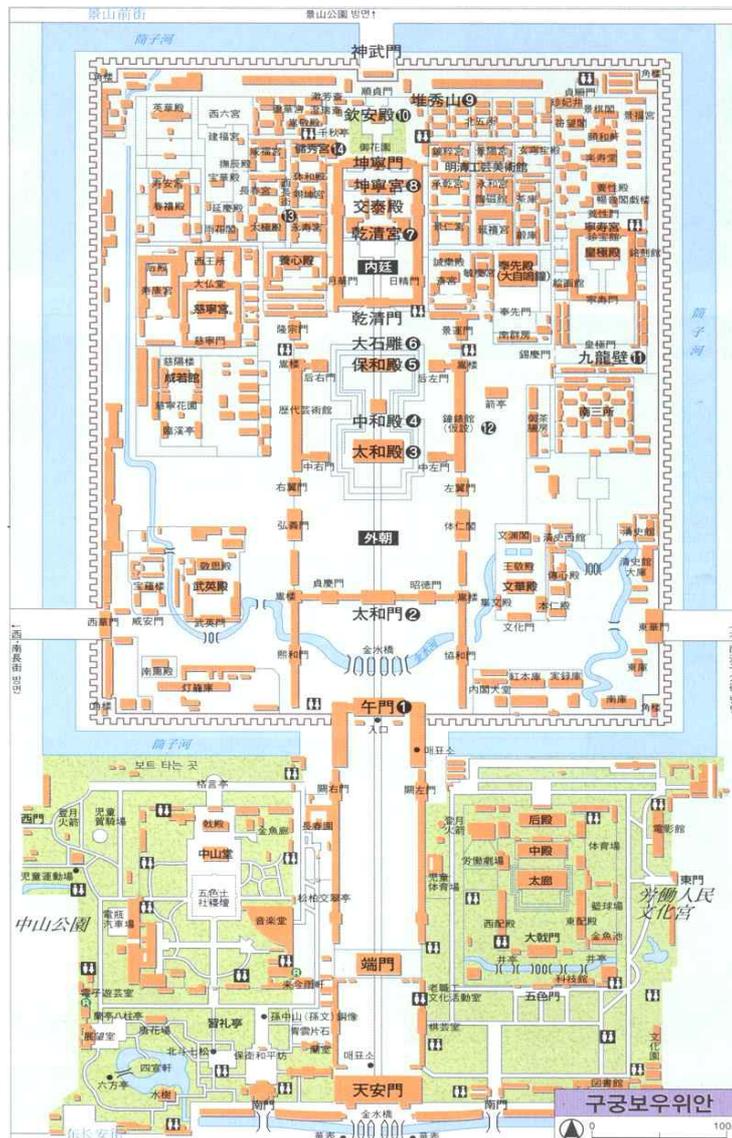
경복궁의 경우 외조와 내조로 구분된다. 외조는 국왕이 정치를 시행하는 공간이고, 내조는 국왕의 사생활 영역이다. 따라서 외조는 근정전이나 사정전을 비롯한 왕의 행동 공간과 세자의 사생활 공간인 동궁, 그리고 왕의 시위 기관인 오위도총부, 삼군부(三軍府) 등의 기관과 왕의 업무(자문) 기관인 승정원, 홍문관 등의 문신 기관들이 있다. 아울러 내조에는 강녕전, 교태전, 후궁 등과 내명부의 처소 등이 설치되어 있고, 왕의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상의원, 내의원, 소주방, 생과방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복궁은 처음 태조가 창립할 때부터 모든 구조물이 전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405년(태종 5) 이후 서울로 재건도하면서부터 건물들이 추가되었으며, 세종 대와 세조 대, 성종 대에 이르러 여러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뀌게 되었고, 고종 대에 대규모로 재건하면서 많은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태종은 궁내에 경회루(慶會樓)를 다시 지었는데, 연못을 넓게 파고 장대한 누각을 지어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잔치를 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파낸 흙으로는 침전 뒤편에 아미산(蛾眉山)이라는 동산을 만들었다.

또한 세종은 이곳에 집현전을 두어 학문하는 신하들을 가까이 두었으며, 경회루 남쪽에 시각을 알리는 보루각(報漏閣)을 세우고 궁 서북 모퉁이에 천문관 측시설인 간의대(簡儀臺)를 마련하였으며, 강녕전 서쪽에는 흙경각(欽敬閣)을 짓고 그 안에 시각과 사계절을 나타내는 옥루기(玉漏器)를 설치하는 등의 여러 건물을 개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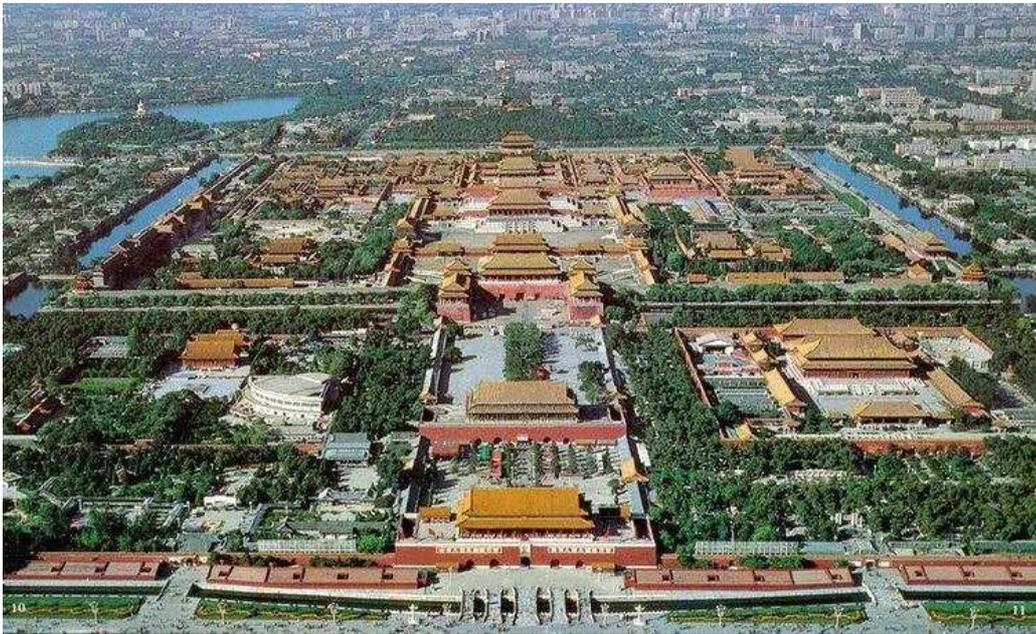
2) 궁궐의 문과 전각

궁궐의 정문은 고문에 해당하는 문으로 ‘화(化)’를 넣어서 명칭을 삼았다. 경복궁의 ‘광화문(光化門)’, 창덕궁의 ‘돈화문(敦化門)’, 창경궁의 ‘홍화문(弘化門)’ 등이 그것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왕의 덕이 온 나라에 비춘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다만 현 덕수궁의 정문은 1906년에 설립하면서 ‘대한문(大漢門)’으로 삼았는데 본래 체제와는 다르다. 정문 앞은 넓은 길로 반 폐쇄적인 광장이다. 이곳에서는 유생들의 복합상소(伏閣上疏)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5〉 중국 자금성의 구조 및 건물

궁궐에는 수많은 담이 있고 이를 ‘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 부르기도 한다. 구중궁궐은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기까지 아홉 개의 담으로 구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후대에 와서는 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담은 원래 바깥으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안에서의 출입을 방지하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었다. 또한 문의 숫자는 경복궁의 경우 238개,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쳐 222개(동궐도 상에는 242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



〈그림 6〉 중국 자금성의 전경

궁궐의 건물은 흔히 ‘전당합각재헌누정(殿堂閣閣齋軒樓亭)’의 구분이 있고, 각각의 칭호가 있었다. 여기서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건물로 의전 행사나 공식 업무 시 사용하는 장소를 뜻하며, 왕이나 왕비가 기거를 하는 장소를 부르는 용어이다. 경복궁에는 왕의 정전인 근정전과 편전인 사정전 그리고 만춘전(萬春殿)과 천추전(千秋殿)이 있었고, 침전인 강녕전(康寧殿), 연생전(延生殿), 경성전(慶成殿)이 들어서 있고, 시어소인 왕비의 교태전 등을 비롯한 17개 ‘전’들이 있다. ‘전’은 왕 및 왕에 버금가는 식구들이 기거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다.

‘당(堂)’은 전(殿)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건물인데, 왕이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장소나 세자 이하 왕자, 공주, 후궁들과 같이 격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세자의 공식적인 집무소는 경복궁의 경우 계조당(繼照堂)이고, 창덕궁은 중희당(重熙堂)이다. 후궁들의 경우에는 빈, 귀인 등 내명부의 일정 지위 이상에 올랐을 때 사용하는 건물이다. ‘합(閣)’은 전에 부속된 건물이지만 독립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각(閣)’은 전이나 당의 부속 건물 혹은 독립 건물을 말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당합각재헌누정(殿堂閣閣齋軒樓亭)’의 순서는 건물 자체의 규모보다는 건물 사용자의 신분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당이 었다가 어진(御眞)을 봉영하는 경우에 ‘전’으로 승격되는 예(경희궁 태령전〈慶熙宮 太寧殿〉)가 있었고, 단일 건물로 볼 때 상당히 큰 경회루(慶會樓)의 경우 ‘누’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 명칭상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에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3) 궐내각사(闕內各司)

궐내각사(闕內各司)는 전내각사(殿內各司)라고도 불리는데, 궁궐 내의 설치된 여러 관청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의 중앙 관청은 궁궐 안에 설치된 궐내각사와 궁궐 밖에 설치된 궐외각사(闕外各司)로 크게 구분된다. 궐내각사는 국왕의 보좌 또는 왕실 업무와 직, 접 관계된 관청으로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 그리고 규장각, 홍문관, 예문관, 세자시강원, 내의원 등의 문한직과 선전관청, 오위도총부, 세자익위사 등의 무관직이 있었다. 이에 대비되는 용어로 궐외각사가 있으니 여기에는 의정부, 육조, 충훈부,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등이 있으며, 이들의 위치는 궐 밖의 관청가에 몰려 있다.

경복궁의 경우 근정전의 서쪽에 있으며 승정원, 규장각, 홍문관, 예문관 등이 이곳에 있다. 창덕궁의 경우 인정전의 서쪽 및 동쪽 (서쪽에 규장각, 홍문관, 예문관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승정원, 사옹원 등)에 위치하였다.

4) 궁궐의 규모

조선 전기에 세워진 경복궁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원군 때는 설계도가 남아있어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 경복궁은 전각 등이 800여 칸이고, 독립 건물의 숫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1908년 궁궐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현존 건물은 총 5,792.5칸이고, 없어진 것은 1,432.5칸으로 총 7,225.5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후원을 합치면 총 7,482칸으로 되어 있다.

창덕궁의 경우에는 1,839.25칸이고, 창경궁은 2,683칸, 후원은 254칸으로 도합 4,776.2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4.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

1) 경복궁의 내전과 외전

경복궁의 공간은 연침(燕寢)과 보평청(報平廳)을 중심으로 하는 내전과 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외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내전은 다시 연침과 보평청의 공간으로 각각 분할되고, 외전은 정전의 문을 기준으로 분할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창건기의 경복궁 공간이 중앙의 정전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정전을 기준으로 하여 정전 문의 앞면과 정전 뒤의 연침 구역으로 삼분(三分)되는 모습이었다.

정전은 왕이 통치 활동을 하는 공적 공간을 말하는데, 이곳은 왕의 권능과 정통성을 상징하였다. 정전은 광화문에서 홍례문, 그리고 근정문과 사정문, 사정전에 이르는 공간으로 여기까지가 공적인 공간인 정전에 해당한다. 근정전은 왕이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국가의 공적인 행사를 행하는 공간이다. 사정전은 왕의 집무실로 평상시 이곳에서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이다. 이들 공간은 국정운영에 필요한 여러 관청의 건물들 즉 궐내각사(闕內各司)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장소이다.

이 북쪽은 내전으로 부르며 연침과 보평청으로 구성되는 공간이다. 내전 중에서도 왕의 사생활이 영위되는 곳은 연침이라 하는데, 연침이란 말 자체가 편안히 쉬며 잠을 자는 곳이란 뜻이다.

내전은 태조 이성계가 1395년 12월 28일에 경복궁에 입주할 때 들어온 공간이다. 처음에 태조의 사생활이 영위된 곳은 연침인 강녕전이었다. 입주 당시 태조는 강녕전의 동온돌에서 생활하고 왕비 강씨는 강녕전의 서온돌에서 생활하였다. 경복궁의 강녕전을 중심으로 사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영위하던 방식은 세종 대에 이르러 강녕전 뒤편에 왕비의 전용건물인 교태전(交泰殿)이 건설되고 교태전 뒤편으로 후궁이 건설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왕비는 중전으로 불리는 교태전에서 생활하고 후궁들은 교태전 뒤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세자는 근정전 동편에 동궁을 따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세종대 이후 왕의 사생활은 왕 자신의 침전, 왕비의 중전, 그리고 후궁이 위

치한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구조는 경복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궁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 조선 시대 궁궐의 공간 구성에서 왕의 사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은 주로 침전, 중전, 후궁 구역이었다.

2) 강녕전과 교태전의 의미

왕의 침전(연침)은 강녕전(康寧殿)이라 부르고, 동소침은 연생전(延生殿), 서소침은 경성전(慶成殿)이라 각각 부른다. 강녕전의 명칭은 정도전(鄭道傳)이 서경의 홍범(洪範)에서 따온 용어로 ‘강녕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서 황극(皇極)을 세운다.’는 뜻이다. 왕이 밤에 조용히 황극을 닦으며 식욕, 색욕, 권력욕 등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왕의 침전은 정(井)의 형태로서 중앙의 방 하나와 이를 둘러싼 8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왕이 잠을 자는 방은 황극을 상징하는 중앙의 방이었다. 침전의 구조 및 이념은 경복궁의 강녕전만이 아니라 창덕궁의 대조전(大造殿), 덕수궁의 함녕전(咸寧殿) 등 다른 궁궐의 침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7〉 경복궁 강녕전의 전경

두 번째로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이다. 교태전은 1440년(세종 22) 9월 경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교태전의 교태(交泰)는 『주역(周易)』의 64괘 중 하나인 ‘태(泰)’ 괘 중에 “천지교태(天地交泰)”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천지가 사귀는 것이 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것은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형상을 해설한 말이다.

경복궁의 교태전은 강녕전의 북쪽에 있다. 공간 구성으로 본다면 왕비의 중전인 교태전이 왕의 침전인 강녕전보다 상위에 있는 셈이다. 이것은 물론 “천지교태”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배치로 왕의 침전과 왕비의 중전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되지만 그렇게 따로 살다가 좋은 날을 받아 서로 합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교태”가 된다고 해석한다.

교태전 뒤편에 후궁(後宮)이 존재하였다. 궁궐 구조에서 왕의 부부생활 또는 성생활을 하는 공간은 중전이나 후궁이었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천자는 황후(皇后) 1명을 위시하여 부인(夫人) 3명, 빈(嬪) 9명, 세부(世婦) 27명, 여어(女御) 81명 등 후궁 120명을 둔다고 한다. 당(唐) 나라 때의 정현(鄭玄)의 주석에 따르면 황제는 황후를 제외한 후궁들과는 집단적으로 합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여어, 세부, 빈과는 9명씩 합방을 하고 부인과는 3명씩 합방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조선 시대 왕은 후궁들과 집단 합방을 하지는 않았고, 후궁은 일반적으로 4~5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합궁하는 장소는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이나 후궁의 처소인 후궁에 해당하고, 왕의 처소인 강녕전에서 합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었다. 조선 시대 왕과 왕비(혹은 후궁)의 부부생활은 기본적으로 대를 이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8〉 경복궁 교태전의 전경